

# “10만법등 밝혀 화엄세계 염원”

## 화엄사 11월 5일 사리천견 회향법회... 문화행사 다채

### 5층석탑 출토 진신사리 22과 재봉안

천년의 화엄성지 지리산 화엄사에서 10만법등을 밝힌 가운데 부처님 진신사리천견 회향법회와 함께 찬불의 문화축전이 봉행된다.

회향사는 오는 11월 5일 오후 1시 특별법회장에서 지난해 8월 西5층석탑을 해체 보수하던 중 출토된 22과의 부처님진신사리를 다시 봉안한다. 이어 2부 찬불문화행사는 밸리트 정종준씨 사회로 한정한 유수정씨 등의 남도민요 성주풀이, 사설가, 새타령, 진도아리랑과

해금 3중주 김영재씨의 직편, 진유림씨의 승무, 차금순씨의 산골이, 안숙선의 관소리 심청가가 공연된다.

3부 10만법등절독식은 오후 5시부터 화엄불교합창단의 합

창과 함께 탑돌이가 거행되며 그동안 사리천견과 봉안불사에 신심과 정성을 담은 10만법등이 점등, 화엄의 연화장세계가 펼쳐질 전망이다.

이날 사리천견회향법회는 지

난해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 22과와 신라시대 경전용 사경한 지류문지등 16종 72점의 국보급 보물유물을 재봉안하기 위해 1년여 동안 불사리 천견법회와 사리탑 조성 10만 법등을

밝히며 정진해온 불사이다. 이 기간동안 회향사에는 1년여 동안 30여만명이 다녀갔으며 10만여 법등이 집수되는 등 불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주지 종영선님은 “사리천견대법회 및 10만등불사 회향법회는 화엄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불자와 전세계 불교인들이 성불과 불국토의 길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발원이다”며 “이를 계기로 화엄사를 청정수행의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대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방송가 소식

#### btn 11월1일 4차 주식공모

불교TV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제 4차 주식공모에 착수한다.

내년 97년 2월까지 80억을 목표로 전개되는 이번 주식공모는 전국적인 불자수에 비해 저조한 불자 주주수의 증가확대, 발전기금 납입자의 주식전환, 부족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교TV는 당초 자립시까지의 기초자금을 2백50억 상당으로 계획했으나 지난 3차 주식공모때 까지 170억 상당의 자본금과 2만여명의 주주를 확보하는데 그쳐 그동안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이번 제4차 주식공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교TV는 24명 이사스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유지불자의 발골동참, 조계종단을 비롯한 종단차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전 제4차 주식공모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불교TV는 24명 이사스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유지불자의 발골동참, 조계종단을 비롯한 종단차원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주지 종영선님은 “사리천견대법회 및 10만등불사 회향법회는 화엄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2천만 불자와 전세계 불교인들이 성불과 불국토의 길로 나아가려는 새로운 발원이다”며 “이를 계기로 화엄사를 청정수행의 한국불교 전통을 계승하는 대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 btn, 태스카이TV 제휴 추진

불교TV가 태국 타이스카이TV 채널 11 불교방송과의 제휴를 추진중이다.

타이스카이TV 채널 11은 지난 8월 1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일 3회순환방송을 13시간 30분 진행해오고 있어 불교TV에 이은 세계 제2의 불교TV 방송.

이에 지난 9월 부터 타이스카이TV와 교류를 추진해 온 불교TV는 지난 11월 회사의 개발적 설명을 담은 홍보서신을 타이스카이TV측에 팩스서신으로 보내 현재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TV의 이호국장은 “타이스카이TV 채널 11은 현재 시험방송중이며 오는 연말께

꿈이나 정상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불교TV와의 본격적인 교류는 내년 초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주불교방송 위성지구 개원**

BBS 미주불교방송 위성지구(미국장경암스님) 개설 개국축하 대법회가 지난 9월 29일 워싱턴에서 거행됐다.

이로써 미주불교방송은 목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간 매일 오후 7시30분부터 10분동안 불교계 소식 및 교리강좌 등을 내보내고 있으며 밤 11시부터 30분간은 고승열전과 진리의 수레바퀴, 참선이야기가 방송되고 있다.

#### 월주·지하스님 BBS 새 이사에

불교방송 제2차 이사회가 지난 18일 신라호텔 파인룸에서 개최돼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지하스님을 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또한 불교방송의 사업확대와 임원 선임방법 등 정관개정을 위한 개정이 논의됐다.

#### ‘우리문화유산시리즈 1집’ 출시

가야프로덕션이 ‘우리문화유산시리즈 제1집’을 출시했다. 이 비디오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등을 답사해 영상 다매체로 제작했다.

가야프로덕션측은 “오는 98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보 및 보물급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우리민족이 꼭 알아야 할 ‘우리문화유산’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제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주 ‘거리법회’를 여는 글래스맨 스님이 법회에 참가한 도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 앞줄 왼쪽이 글래스맨 스님.

## 뉴욕 빈민의 보살 글래스맨스님

뉴욕의 삭막한 거리를 떠도는 도시빈민을 위해 보살행을 베푸는 스님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 글래스맨스님(뉴욕선원 원장)은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뉴욕과 같은 도시가 고질적으로 안고있는 병폐를 없애는 첩경’이라는 신념에 따라 지난 79년 ‘그레이스톤 만다라’ 재단을 설립해 도시빈민 구제에 원력을 쏟고 있다.

이 재단은 ‘그레이스톤 만다라’로 불리는 공동주거지를 마련해 도시빈민들을 입주시키고 공동생활을 통해 구성원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제빵기술’ 등의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해 인생을 새롭게

**79년 ‘...만다라’ 재단 설립**  
**제빵기술 등 취업교육 실시**  
**공동주거지 개원 30세대 상주**  
**약물중독·에이즈환자 치료도**

설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독립적인 생활거주지와 직업도 알선해 주고 있다. 이 공동주거지는 개원(開院)과 더불어 19세대 55명이 입주했으나 현재 30세대 99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레이스톤 만다라’ 재단에서는 대다수 빈민들

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어 적잖은 포교성과를 올리고 있다.

매주 거리법회를 열어 ‘그레이스톤 만다라’의 공동체 삶과 재활교육에 보다 많은 도시빈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는 글래스맨 스님은 “이곳에 입주한 도시빈민이 사회적 친화감을 먼저 배우길 바란다. 이들이 배운 친화감을 사회로 전할 수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변혁이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 등 5대권역으로 나누어 총 57가지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중 도립공원 관광개발기획안중 팔공산권 개발계획과 관련,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관광개발기획안(단장 박병현·대구시행정부시장이 10월 내놓은 중간보고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시를 도심권, 팔공산권, 비슬산

#### 민속타운건립·갯바위불상 상품화등 관광특구 지정

## 팔공산 개발계획 문제있다

#### 동화사·선본사 대구시에 반대입장 표명

대구광역시 대구공원의 국제선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관광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 중인 관광개발기획안중 팔공산권 개발계획과 관련, 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구시 관광개발기획안(단장 박병현·대구시행정부시장이 10월 내놓은 중간보고에 따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시를 도심권, 팔공산권, 비슬산

#### 3년전 이맘때

3년전 이맘때였다. 한반도는 온통 해인사가 지리해 있는 가야산으로 들쭉였다. 前 해 인종림 방장 성철스님의 열반 때문이었다. 매체마다 이땅의 어른이 육신을 버리고 떠나갔음을 알고 애도해 있었다.

또다시 가야산이 메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에는 해인사 인근에 골프장이 들어서던가아에 불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메스컴의 매주가 해인사 사중의 불협화

#### 통과, 각국의 전통민속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세계종합민속타운이 들어서면 동화사는 수형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통과, 각국의 전통민속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세계종합민속타운이 들어서면 동화사는 수형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교성지와 세계민속타운은 성격상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관광산업입증대만을 노린 단순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경주나 설악산처럼 팔공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 역시 외국인 관광객보다 내

국인 관광객유인이 많을 경우 교통체증, 부동산투기등 조성, 불교성지의 유희가로의 전락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획안은 또 팔공산 갯바위불상(관봉약사여래좌상)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미니어처제작(목공예) 판매, 입장요금징수를 통한 관광개발기금의 조성 등의 기획안을 내놓았다. 갯바위불상을 대구의 상징물로 부각시키고 소원성취와 연계한 홍보전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갯바위 선본사측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오는 11월로 예정된 시민공청회에도 참석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 「불자의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의 집**

▲ 크기 6cm×7.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설명을 넣어 드립니다

**불자의 집**

▲ 크기 3.5cm×10.5cm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설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물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급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달력크기/26cm×26.7cm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급특가 1부당 /1,300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담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